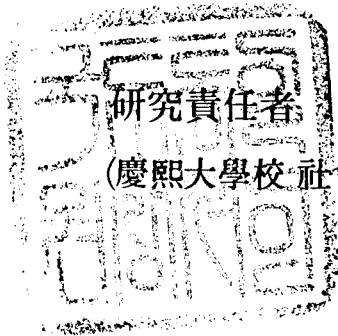


- I. 이 冊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統一研究事業의 體系化 및 方法論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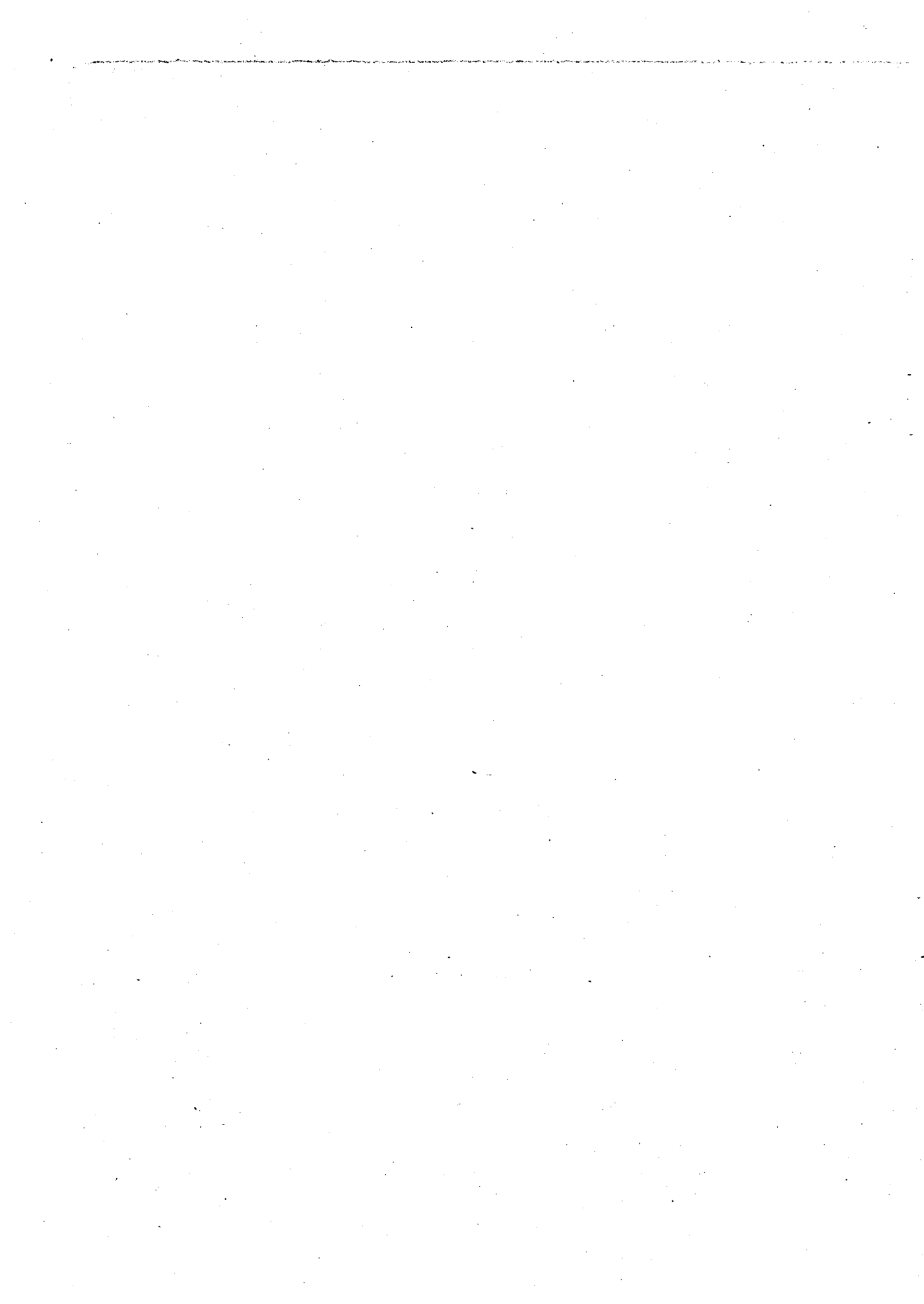
研究責任者 李 英 峻  
(慶熙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助教授, 法博)

國 土 統 一 院  
南 北 對 話 事 務 局



# 目 次

I. 研究의 必要性	3
II. 統一認識의 設定	5
1. 統一問題는 民族概念設定의 問題이다.	5
2. 民族主義란 「共同歸屬에의 意志」로 把握하여야 한다.	7
III. 大韓民國과 「共同歸屬에의 意志」와의 關係	10
1. 大韓民國과 民族主義	10
2. 大韓民國과 統一論	13
3. 南·北韓對話에 의한 統一原則論의 設定	17
IV. 國家利益과 理念問題	21
1. 國家利益의 概念 및 傾向	21
2. 大韓民國과 國家利益	25
V. 統一을 위한 國民의土臺의 造成	29
1. 貧富隔差의 해소를 통한 社會的 一體感 形成	29
2. 主體的 民族史觀의 形成	30
3. 民族同質性 維持를 위한 方案의 講究	33
VI. 提 言	36



## I. 研究의 必要性

南·北韓이 分斷된지 40여년이 지났으며 이는 固着化現象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점은 우리에게 있어 統一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分斷의 悲劇과 同族의 相殘을 겪은 當事者들의 경우 統一의 名分과 統一의 方法은 선명하다. 그러나 分斷이 固着化되고, 6.25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世代에 있어서 과연 分斷世代가 느끼는 統一의 名分과 統一의 方法이 그대로 傳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新世代가 統一問題의 當事者로서 서게 되었을 때 어떠한 立場에 基하여야 하는가 하는 問題와 直결이 된다. 이는 곧 新世代統一意識 定立教育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統一이란 問題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對備策은 教育을 통한 國民意識의 形成에 기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統一教育의 大宗은 分斷當事者들 및 6.25 經驗者들에 의한 感情的 호소로서 對北韓에 관한 증오감 및 적대감 形成 및 維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統一의 當爲性이나 南·北韓體制에 관한 活潑한 理論的 論議는 限定된 사람만을 제외하곤 봉쇄되었으며 大多數의 國民은 北韓에 대한 敵愾心의 表現으로서 충분하였다. 또한 한정된 사람에 의한 統一研究의 대부분도 統一과 관련되는 여러 단편적 사건에 대한 분석에 불과했을 뿐 對國民的教育을 위한 종합적인 統一理論의 모델에 관한 研究는 부진했다.

그러나 國民構成員의 大多數가 分斷固着後의 世代라는 점을 勘案할 때 중

래와 같은 感情的 호소에 의한 對北韓觀의 形成내지 限定된 사람에 의한 南·北韓研究는 國民的 호소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情報의 開放社會에 있어 자칫하면 少數의 意見으로 轉落되어 國民으로부터 外面받기 쉽다.

本 研究는 이러한 要因의 解消를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基本概念의 定立을 통해 新世代教育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II. 統一認識의 設定

### 1. 統一問題는 民族概念設定의 問題이다.

지난 40년 동안 統一問題는 南·北韓間의 懸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統一에 대한 見解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두 가지 見解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韓國의 分斷化가 國際政治的인 他律에 의하여 초래되었으므로 그 統一도 역시 國際政治的 與件이 조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밖으로 國際政治的 他律이 統一의 與件을 마련해 주어야 統一이 可能하다는 主張이다. 다시 말하면 國際政治的條件이 韓國統一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며 韓國國民 자신의 주체적 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統一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見解는 韓國의 分斷이 國際情勢라는 他律에 의하여 決定되었고, 分斷 이후 끊임없는 韓國國民의 統一努力이 이른바 冷戰體制라는 國際關係에 밀리어 빛을 보지 못했다는 現實的인 經驗에 그 基礎를 두고 있지만, 때로는 統一의 責任을 他律에 전가시키는 구실로도 利用되어 왔다.

둘째는, 韓國의 分斷은 他律에 의하여 결정되었지만, 統一은 內的인 要因, 卽 統一의 主體인 韓國國民의 意志와 그들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軍事 등의 內的인 條件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見解이다.<sup>1)</sup>

이 두가지 見解는 모두 그 나름대로의 妥當性을 갖고 있지만 2次大戰 이후의 양극체제가 緩和되어 協力體制 내지 共存體制로 변모하였고, 韓半島

---

1) 신일철, “韓國統一에 있어서 民族의 問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실편, 1972.

統一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民族 內部的 자신감도 성장되었기 때문에 民族主義라는 관점에서 볼 때 統一問題는 韓半島內部的 問題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即, 韓半島의 分斷은 외세에 의해 他律的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統一은 우리民族 自身이 自律的으로 이루어야 할 課題라고 보고 韓半島의 統一은 國際的 狀況보다도 우리民族 자신의 의지와 역량에 더 많이 달려 있다고 하면서 美·蘇·中·日에 의해 互相構造化되고 있는 현재의 東北亞 情勢를 어떻게 보건간에 分斷後 지금까지에 걸쳐 각기의 勢力基盤을 굳혀온 두개의 異質的인 “政治勢力”이 韓半島 안에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주변 열강간의 利害關係調整이라는 國際政治的인 문제이기 보다는 두 異質的 勢力간의 문제, 곧 우리民族 자신의 문제로 歸着되어 가며, 이는 統一方法論的 側面에서 볼 때 依他的 方法에서 自主的 方法으로 統一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主張이다.<sup>2)</sup>

新世代統一教育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分斷은 우리의 意志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統一 또한 우리의 國民的 意志와는 상관없다. 그러므로 各者는 現狀況에 順應해서 지내다 보면 어느날 統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式的 統一觀을 심어줄 수는 없으며, 이러한 統一觀을 심어주었을 경우 과연 統一이란 問題를 우리가 云謂할 수 조차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히 國民的 統一觀의 形成이라 함은 後者の 경우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으며 韓半島에 있어 統一問題의 本質은 南·北韓에 存在하는 두 異質的 勢力간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이 妥當하다.

---

2) 차기백, “국토통일과 정치적 리더쉽”,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 연구실편, 1972.



그렇다면 南·北韓에 存在하는 두 異質的 勢力에 있어서 共通的으로 내  
걸 수 있는 統一의 名分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한 問題  
는 결국 民族이란 무엇이며 民族主義란 무엇인가의 問題로 歸着된다.

## 2. 民族主義란 「共同歸屬에의 意志」로 把握하여야 한다.

民族主義란 매우 비합리주의적이고, 多義的인 概念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一律的인 定義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原語인 nationalism을 흔히 國家  
主義·國民主義·民族主義 등으로 翻譯되어 각기 nationalism이 갖는 概念  
의 一面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이를 包括的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民族主義라고 할 때 民族에 기반을 둔 國家의 形成을 지  
상목표로 삼고 이것을 創建·維持·擴大하려고 하는 民族의 精神狀態, 政策  
原理 또는 그 活動을 指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향토나 지방적 傳統 또는 지역적인 既成權威에 대한 간절한 愛着은 정  
도는 다를지언정 어느 時代에나 있어 왔다. 그러나 近代의 의미의 natio-  
nalism이 온갖 公私生活의 성격을 점점 더 규정하면서 公認된 하나의 感情  
으로 되게 된 것은 18世紀 後半이며 各 民族(nationality)은 제각기  
자기의 國家를 形成하여야 하며 또 그 國家는 自民族을 전부 包含해야 한  
다고 주장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에 불과하다. 예전에는 개개인의 忠  
誠은 응당 民族國家에 바쳐진 것이 아니라 宗族이나 民族·都市國家나 封  
建營主 또는 王朝國家·교회 내지 종교집단 같은 民族國家와는 형태가 다  
른 社會的 權威나 政治團體, 그리고 理念上的 結合體 등에 바쳐져 왔다.  
여러 世紀에 걸쳐 政治的 理想은 民族國家의 確立이 아니라 적어도 理論  
上 만이라도 一般的 平和를 保全하기 위하여 共通된 文明의 基盤위에 여

러 民族과 人種集團을 포함하는 世界帝國의 建設이었다.

더구나 民族(nationalities)은 역사의 생동하는 힘의 소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착잡한 성격을 지니는 집단이므로 정확한 定義를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民族은 대개 다른 民族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客觀的인 諸要素, 이를테면 같은 血統·言語·領土·政治的 實體·慣習과 傳統 내지 宗教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諸要素 중의 어느 하나도 民族의 實存이나 定義에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그래서 美國人은 하나의 「국민」(nationality)을 형성함에 있어서 같은 血統을 요구하지 않으며 「스위스」인은 3~4개의 다른 言語를 使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뚜렷한 國民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客觀的 要素가 國民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生動하는 積極적인 소속의사이다.<sup>3)</sup>

우리가 民族主義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意思를 가리키지만 그것은 다름아닌 國民의 대다수를 고무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國民全體를 다같이 고무하기를 要求하고 있는 하나의 心理狀態이다. 따라서 民族主義에 있어서는 民族國家야말로 理想的인 동시에 유일한 合法的인 政治組織體이며 「民族」(nationality)이야말로 온갖 文化상의 創造力과 經濟上의 福祉의 源泉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이렇게 볼 때 民族主義에 있어 가장 代表的인 징표는 「共同歸屬에의 意志」로 把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 「共同歸屬에의 意志」란 과연 存在하며 存在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3) 한스·콘著, 車基壁譯, 民族主義(서울:三星文化財團, 1974), pp.10-11.

4) Ibid.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우선 韓國民族은 半島라는 지리적 위치와 일찍부터 거의 고정된 國土, 外民族과의 混合이 거의 없는 狀態에서 比較的 단출한 인종 내지 종족의 구성, 唯一·固有의 言語, 공통적인 생활양식과 전통 그리고 文化, 수 없이 되풀이된 外族의 侵入에 대항하면서 강화되어온 共同運命體意識을 들 수 있다. 이 共同運命體意識이야말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妥當性的 根據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共同運命體意識이 存續하는 한 「共同歸屬에의 意志」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歴史的으로 볼 때 이러한 共同運命體意識을 바탕으로 한 韓國의 民族主義가 구체적으로 表出되기 시작한 것은 19世紀 후반부터이다. 즉, 列強의 식민정책, 특히 日本의 大陸에로의 膨脹政策이 적극화 되자 이에 대항하여 韓民族이 벌였던 衛正斥邪運動, 開化運動, 東學運動 등이 民族主義를 바탕으로 한 初期的인 「共同歸屬에의 意志」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19年의 3.1運動은 자주, 개화, 개혁을 追求하고 反侵略, 自主, 獨立을 주장하면서 韓民族 거의 전체가 參與한 運動으로 韓國의 民族主義는 3.1運動을 계기로 共同運命體意識을 바탕으로 한 「共同歸屬에의 意志」를 內外에 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共同歸屬에의 意志」는 日本으로부터의 解放 이후 어떠한 形式으로 나타나는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民族主義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측면과, 두번째는 「共同歸屬에의 意志」의 具體的表現인 統一論이 어떠한 內容이었으며 이는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측면이다. 이하 章을 바꾸어 論하기로 한다.

### Ⅲ. 大韓民國과 共同歸屬에의 意志와 의 關係

#### 1. 大韓民國과 民族主義

大韓民國 建國 이후 韓國의 民族主義는 오히려 쇠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國土와 民族의 分斷, 北韓共產集團의 계속된 南侵 威脅, 冷戰期의 國際環境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다.

8.15는 韓國民族에게 日帝植民地 支配로부터의 解放이라는 감격과 民族 獨立國家를 가지게 되리라는 당연한 希望과 期待를 주었기 때문에 韓國 民族主義는 무난히 성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이와 달랐다.

統一·獨立·民族國家가 아니라 國土와 民族의 分斷 이외에도 分斷된 南과 北이 각기 占領國들의 思想·理念·體制에 입각에 격렬히 對決을 벌였고, 특히 南韓側은 蘇聯이라는 外勢에 힘입어 世界赤化戰略의 任務를 充實히 遂行하고자 하는 北韓으로부터의 南侵威脅에서 벗어나는 것이 最大의 課題가 된 것이다.<sup>5)</sup>

사실, 解放 이후 韓國民族主義가 소심해지고 쇠퇴하게 된 가장 根本的이고 큰 原因은 北韓地域에 共產主義政權이 樹立된 것과 이들의 끊임없는 南侵策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民族의 概念을 무시 내지는 거부하고 世界勞動者라는 階級의 概念을 우선시 혹은 절대시 하면서 共產革命만을 추구하는 北韓共產集團의 存在는 南韓에 居住하는 住民들로 하여금 民族의 共同運命體의 連帶意識이나, 感情, 民族統一國家의 樹立이라는 「共同

---

5) 金正煥, “民族主導와 國際秩序”, 政經研究 Vol.161 (1978. 7), pp. 84 ~ 93 參照.

歸屬에의 意志」보다도 蘇聯을 주축으로 하는 國際共產主義勢力에 의하여 強力히 뒷받침을 받는 北韓共產政權의 侵略威脅으로부터 生存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課題라고 믿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民族이나 國家의 獨立·主權을 強調하기 보다는 절박한 生存權의 保存이라는 측면에서 美國을 비롯한 西方諸國들과의 緊密한 同盟·友好關係를 추구하고 共產勢力에 대항하여 西方勢力과의 連帶意識과 유대의 強化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南·北對決의 狀況에서 韓國人들의 對外依存的 思想과 意識은 심화되어 갈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自主·自尊의 意識은 쇠퇴하여 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文化的으로도 파급되어 西方勢力과의 連帶意識과 유대의 強化가 오히려 脫民族的인 현상으로까지 나타나 西方先進國들의 文物을 무조건 숭상하고 우리 民族 固有의 文化와 傳統·藝術·思想·生活樣式 등은 외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國際關係에 있어서 韓國의 對外關係를 어떻게 만드는 要因이 되기도 했다. 이는 2次大戰 이후 新生獨立國에 있어서 共通的으로 일고 있던 民族主義에 대해 敵對感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들 신생국들의 對外路線과 이들의 民族主義가 일반적으로 社會主義와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民族主義는 곧 社會主義와 통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新生獨立國들은 韓國立場으로 보아서는 同盟·友好關係를 緊密히 유지할 必要가 있는 西歐先進國들의 植民地였었기 때문에 이들 新生國들은 獨立의 過程이나 혹은 指導者들에 따라 여러 차이를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反植民主義, 反帝國主義 따라서 反西方 및 反美路線을 표방·追求하였고 親共的인 性向을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新生國들을 會員國으로 하는 非同盟·中立勢力이 美·

蘇 양진영의 어느 한 진영에 가담하는 것을 拒否하고 中立的인 獨自-  
路線을 追求하고 東·西對決에 있어 均衡者的 役割을 遂行한다는 것을 主  
張하고 표방하면서도 오히려 많은 경우 反西方·親共産的 경향과 態度를  
나타내고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은 과거의 植民帝國들에 대한 抵抗的 民族  
感情과 民族主導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美國을 비롯한 西方先進  
國들은 新生國들의 이러한 民族主義를 警戒하였고, 이들의 非同盟·中立路線  
을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韓國의 民族主義도 解放 이전까지는 反侵略·反植民地的 抵抗民族主義 로  
서 이들 新生國들의 民族主義와 同質的인 理念과 形態를 띠고 있었으나,  
解放 이후 東·西 양진영의 敵對的 대치라는 와중에 휩싸이고 더구나 南  
北의 對決이라는 절박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自由陣營의 擴大와 結束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追求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美國을 비롯한 西  
方先進國들의 新生國들의 勢力에 대한 態度와 政策에 同調할 수 밖에 없  
었고, 또한 非同盟勢力의 이러한 反西方·親共産的 경향과 行動에 대해 敵  
對感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蘇聯을 비롯한 共産國家들은 西方과의 대결의 一環으로 일찍부  
터 新生獨立國 및 非同盟諸國들에 接近하여 이들의 反西方的 경향을 고  
무하고 民族解放鬭爭에 대한 支持와 支援을 내세우면서 非同盟諸國에 접근  
했다. 北韓政權 역시 非同盟勢力에 대해서 反植民·反帝國主義鬭爭 및 反  
美鬭爭의 連帶性을 내세우며 同類意識을 強調하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  
서 對外的으로 그들이 韓半島에서 유일한 民族主義勢力인양 認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非同盟諸國에 있어 이 때부터 民族主義란 곧 北韓  
의 對外基本政策인양 認識되었으며 韓國은 外勢에 完全히 추종하고 예속

되어 있는 非民族的 勢力으로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事態가 惡化된 것은 1960 年代에 들어와 선명한 色彩를 띠고 強力히 推進된 불란서를 비롯한 일부 西方國家들의 民族主義 路線에 대해 韓國은 마찬가지로 同調的인 態度를 보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態度를 危險視하고 이를 強力히 비난하고 저지하려고 하였던 美·英 등의 態度에 同調하였기 때문에 韓國의 立場은 民族主義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韓國의 그러한 態度는 當時로 보아서 北韓政權으로부터의 南侵威脅은 조금도 감소되어 있지 않은 狀態에서 北韓政權에 대한 共產勢力들의 支持와 支援態勢에는 전혀 變化가 없는데 불구하고 韓國이 依存하고 있던 西方勢力이 분열하는 듯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韓國의 자기 防禦라는 立場에서 볼 때 不利한 立場이 된다고 判斷되어 西方陣營의 힘의 弱化를 우려한 것이지 本質的으로 民族主義를 마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韓國은 民族主義는 國家利益에 反한다고 까지 생각해 된 것이다.

## 2. 大韓民國과 統一論

1945 年 解放 이후 統一을 위한 運動 내지 論議는 여러가지 形態로 전개되었다. 개중에는 政權에 의해 合法화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채 하나의 움직임에 그친 것들도 많았다. 時代的으로 그 主要한 것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南·北協商統一論

解放 이후 政府樹立 이전의 가장 대표적인 統一論으로서 1948年 4月 19日 김구·김규식 양인에 의한 南北協商을 말한다. 그러나 同 協商은 北側의 무성의로 失敗로 끝났고 南韓의 美軍政當局으로부터도 支持를 받지 못한 協商이다. 그리하여 5月 10日 南韓 單獨選舉를 거쳐 單獨政府를 樹立함으로써 南·北協商統一論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 2) 北進(武力)統一論

大韓民國은 유엔에 의거 自由總選舉實施後 合法政府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北韓政權은 불법적 政權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不法적인 集團은 合法的인 政府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論理에서 이 때 부터 北韓은 괴뢰政權으로 南韓側에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는 對話나 協商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打倒 내지 剝奪의 對象이 된 것이다. 특히 6.25 이후 南韓에 의한 北韓의 北進統一論은 統一의 基本的 政策으로 內外的으로 確固한 位置를 點하고 있었다. 그러나 武力에 의한 北進統一論은 戰爭이 가져오는 비참·잔인·무의미함을 세삼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限界가 있었고, 오히려 北韓政權이 主張하는 6.25의 北侵說을 도와주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어 對外的으로 마이너스적인 要素가 더 많은 統一論이었다는 點이다.

## 3) 曹奉岩의 平和統一論

南·北協商에 의해 統一政府를 세워야 한다는 論議는 결국 무위로 돌아가고 南·北間에는 동족상잔이 3年餘 남짓 벌어져 全國土와 數百萬 同胞가 치절한 피해를 입은 채 분단상태는 여전히 戰爭前으로 되돌아 갔다. 이 때 새로운 동족상잔을 막으려면 民族은 統一이 되어야만 하며 이 統



一은 戰爭이 아닌 平和로운 方法에 의한 統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平和統一運動은 당시 진보당의 黨首인 曹奉岩이 진보당의 大統領候補로 추대되면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公約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진보당이 이와같은 政策을 내세우게 된 것은 당시 이승만 大統領이 기회있을 때마다 「北進統一」을 主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曹奉岩의 이러한 平和統一論은 北進統一만이 유일한 統一方法인 것처럼 주장되던 당시 統一問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4) 中立化 統一論

1960年 4.19 이후 統一論議는 社會各層에서 활발히 展開되었으며 7月 29日 실시된 選舉에서는 各 黨이 다투어 統一政策을 提示했으나 한 가지 共通된 사실은 武力에 의한 北進統一論은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民主黨의 경우 유엔監視下에 南北을 통한 完全한 自由選舉로써 平和的 民主統一을 달성한다고 하여 自由黨 시절의 北進統一論을 完全히 排除한 것이다.

특히 統一問題는 革新界에 있어 활발했고, 革新界는 둘로 구분 되는데 그 하나는 <民族自主統一中央協議會>에 의한 統一 方案으로서 우선 “自主” “平和” “民主”라는 3大原則下에 ① 즉각적인 南北政治協商을 열 것, ② 南北民族代表들에 의한 「民族統一 建國最高委員會」의 構成을 提議하였고, ③ 外勢의 배경, ④ 南北韓 代表會談에서 統一을 協議하며, ⑤ 統一 後 오스트리아式 中立 또는 영세中立을 擇할 것이냐 또는 다른 形態를 擇할 것이냐를 決定할 것 등을 主張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革新界인 <中立化 祖國統一運動 總聯盟>의 主張은 ①

國際會議를 통한 國際的 保障下에 영세中立 統一을 기하여야 하며, ② 永世中立化를 成就하기 위해서 國民運動을 展開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6) 따라서 당시 革新界의 中立化 統一論은 일종의 非同盟運動으로도 把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中立化 統一論은 주로 革新界에 의해서 主張 되었기 때문에 5.16 이후 軍事政府에 의해 革新界가 검거됨으로서 이러한 統一論議도 사라지게 되었다.

#### 5) 先建設 後統一論

1961年 5.16後 軍事革命 當局은 民族的 숙원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대결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을 기울인다고 闡明하고 여기에 先建設·後統一論을 제창하였다. 즉, 北韓 共產主義와 대결해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統一을 미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에 관한 論議도 學論할 수 없게 된 것이다.

民正 이양후 第3共和國의 國會로 보낸 1964年の 연두교서에서 朴正熙 大統領은 統一問題에 言及, 유엔을 통해 自由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統一을 달성할 수 있도록 積極的인 外交活動을 展開할 것이며 變遷하는 國際情勢에 대처하여 統一을 위한 諸般 問題에 대비하는 研究와 態勢를 갖추어 나갈것을 闡明 했다. 이는 4.19 이후의 모든 統一論議를 차단한 후 政府가 최초로 밝힌 統一政策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統一政策은 民主黨 政權 때의 統一論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두가지 統一論의 特徵은 똑같이 유엔에 의한 統一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國家

---

6) 宋建鎬, “60,70年代의 統一論議,” 창작과 비평(1984), pp. 148-149 참조.

成立 正當性의 근거 및 當爲性을 國際機構로부터 끌어내려는 努力은 努力 그 자체로서는 가상하나 실로 어찌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當時로서는 이 方法만이 統一에 대한 正當性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民主黨 政權때의 統一論과 달라진 점을 窺이 查한다면 自由民主主義에 의한 統一이 強調되었다는 점과, 統一에 관한 研究的인 態度를 갖겠다고 표명한 점이다. 統一을 研究의 對象으로 삼겠다는 것은 실로 큰 發展이며 이러한 점이 1969年 3月 國土統一院이 發足되어 統一問題를 研究하고 統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이 마련된 것이다.

### 3. 南·北韓對話에 의한 統一原則論의 設定

1970年代에 들어 南·北問題에는 커다란 進前이 있었다. 그것은 1970年 8月 15日 大統領의 聲明을 통해 “…… 南·北韓間에 가로놓인 인위적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施行할 用意가 있다”고 宣言했고, 1971年 8月 12日에는 韓國 赤十字社를 통해 南北家族찾기 會談을 北韓 赤十字社에 提議하여 同年 8月 20日 板門店에서는 南北이 分斷 26年만에 처음으로 對面 新任狀을 交換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구나 뒤이어 1972年 7月 4日에는 南·北韓間에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

同年 7月 4日 10時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에 發表된 南北共同聲明은 7個項의 比較的 짧은 內容의 合意文書였으나 그 內容은 60年代까지의 南北對決을 請算하고 南北의 平和共存的인 現實의 바탕위에서 統一問題를 비롯한 民族的 諸般問題를 平和的인 手段으로 解決키로 한 解放以後 가장 뜻깊은 歷史的 文書이다.

그 重要性은 南·北이 지금까지의 敵對關係를 對話關係로 發展시켰다는 點과, 南·北韓間에 있어 兩當事者의 合意에 의해 統一의 原則論을 內外에 公示했다는 점에서 더욱 높이 評價된다. 同 宣言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雙方은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據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셋째,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② 雙方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

③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回復하여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南北사이에 多방면적인 諸般交流를 實施하기로 合意하였다.

④ 雙方은 지금 은 民族의 거대한 期待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 會談이 하루 빨리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하는데 合意하였다.

⑤ 雙方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正確히 處理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⑥ 雙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南北사이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部長과 金英柱 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⑦ 雙方은 以上の 合意事項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온 民族 앞에 엄숙히 約束한다.

이상과 같이 宣言된 7·4 共同聲明의 意義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論議될 수 있겠지만 우선 重要한 것을 세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南·北韓은 공히 우리는 하나의 民族이라는 것을 文書化 함으로써 統一의 當爲性을 提示해 준 점은 앞으로도 계속 歷史的 價値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同 宣言은 民族의 이름으로 民族앞에 엄숙히 約束된 「文書化된 民族의 約束」이라는 점이 계속 評價되어야 한다.

둘째는 統一이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韓半島의 分단이 國際關係의 副産物로 되어 왔고, 따라서 統一問題도 “유엔의 決議를 尊重하며 유엔 監視下의 自由選舉”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民族自主的인 힘에 의하여 統一問題를 解決하려는 데 合意를 본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東·西間의 해빙기를 틈타 國際權力政治의 影響을 벗어나려는 첫 발동음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세째는 南北韓이 하나의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기 위하여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冷戰體制의 論理를 反映하여 서로 相對方의 存立을 否定하는 바탕위에서 展開되는 統一政策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

때 同 宣言은 冷戰體制的인 統一論理를 克服하였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 그러나 同 宣言은 이러한 意義를 갖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內部的인 問題點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對國民的인 側面에서 볼 때 南·北統一觀의 定立이라는 側面보다는 事前에 아무런 說明없이 統治權의 行使라는 側面에서 불쑥 튀어 나왔기 때문에 國民은 오히려 당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統一에 관한 論議는 역시 國民的 次元에서는 論議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 것은 同 宣言의 否定的인 側面으로 把握될 수 있다. 이 結果 그 以後에 나타나는 對北 提案들은 다 이러한 패턴을 이어 받아 하나의 定型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經緯야 어찌되었든 同 宣言에서 合意된 統一의 3大原則 즉, 自主의 原則, 平和의 原則, 民族大團結의 原則을 現在에 어떻게 살려나가야 하는 것은 統一研究에 있어 큰 課題가 아닐 수 없다.

## Ⅳ. 國家利益과 理念問題

7.4 共同聲明中 統一의 原則에 나타난 民族大團結의 原則은 思想,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思想, 理念을 超越한다는 것과 現在까지 維持, 保存하였던 思想, 理念을 拋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意味라는 것만은 分明하다. 따라서 同 宣言中 民族大團結의 原則의 遵守는 現 思想, 理念, 制度의 否定을 意味하지 않는다. 그러나 國家的 利益에 合致된다면 그 變化가 可能하다는 點은 明白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先決되어야 할 概念은 國家利益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點이다.

### 1. 國家利益의 概念 및 傾向

境遇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使用되는 國家利益概念은 반드시 明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극히 추상적으로 말하면 national interest란 民族國家 (Nation or National state)를 形成하는 各 民族(nation)이 한결같이 가지는 民族的 熱望을 實現하는 일이라고 하겠다.<sup>7)</sup>

民族的 熱望은 民族을 過去에 결부시키는 民族的 傳統, 그것을 現在에 결부시키는 民族的 利益, 그것을 末來에 결부시키는 民族的 使命이라는 서로 밀접히 關係되는 三者의 複合體 - 그것들은 하나의 心理構造의 各部分들이다에 의해서 規定된다. 그러므로 民族的 熱望은 歷史的 段階와 民族 差에 따라 그 構體的 內容은 서로 다르게 마련이나 그런 差異를 넘어서

---

7) 車基壁, “무엇이 國家利益이냐?”, 思想界 vol.157. (1966.3), pp. 92 ~ 98 參照.

모든 民族에 共通되는 一般的 熱望은 다음과 같이 對外的인 것과 對內的인 것의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처음의 카테고리인 對外的 熱望으로서

첫째, 「民族的 自由」에 對한 熱望이며 이것은 外國의 支配나 間涉으로서의 獨立을 意味한다.

둘째, 「民族的 個性」에 對한 熱望이며, 이것은 他民族과 區別짓는 自民族의 特異성과 獨自性에 對한 強調를 包含한다.

셋째, 「民族的 위신」에 對한 熱望이며, 이것은 自民族의 名譽, 偉嚴 및 勢力을 과시하려는 慾望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熱望 中에서도 民族의 위신 내지 優越성을 내세우려는 慾望이 第一 強하며 다른 두 慾望의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의 카테고리인 對內的 熱望으로서

첫째는, 「民族的 統一」에 對한 熱望이며 이것은 具體적으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統一性 및 連帶성을 確保하려는 慾望을 意味한다.

둘째는, 「民族的 對內的 自由」에 對한 熱望이며, 이것은 反民族的이거나 民族의 名譽를 損傷시킨다고 生覺되는 諸勢力으로부터의 自由를 包含한다.

셋째는, 「民族構成員에 相對的인 同質성을 確保하려는 慾望을 말한다.

따라서 national interest란 民族의 統一과 獨立의 確保, 國家의 번영과 國民福祉의 增進 그리고 民族文化의 暢達과 國威宣揚이라는 서로 補完關係에 있는 民族의 熱望을 實現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national interest의 觀點에는 高度의 觀念성과 高度의 現實성의 兩面이 있다.



一般的으로 말하면 上昇의인 階層이 體制를 擔當하여 被支配階層도 部分的이나마 利益의 分配를 받을 수 있는 狀況에 서거나 植民地支配에서의 獨立을 追求하는 境遇에는 national interest란 觀念은 現實性を 띠어 廣範圍하하게 뿌리를 박게 된다. 體制가 下降期에 들어서거나 獨立을 爭取한 後에는 支配層이 내거는 national interest는 觀念化하고 階層的 利益을 代辯하기 쉬워진다.

그리하여 現實의 基般을 喪失하게 되면, national interest란 觀念은 虛僞意識化하여 社會的 모순을 은폐하는 役割에 不過하게 된다.

西歐先進諸國의 境遇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뚜렷이 나타난다. 民族國家의 形成期인 絶對主義時代에는 君主가 내건 national interest는 部分的, 地域的 利益이 그것에 증속되었다는 點에서 現實性を 지녔으나, 그 national interest는 實常은 絶對君主의 利益에 不過했으므로 結局 觀念的인 狀態에 머물렀다.

부르조아革命으로 등장한 市民的 民族國家에서는 national interest란 事實 부르조아의 利益을 意味했다는 點에서 그것은 觀念性を 면치 못했으나 그래도 資本主義 發達이 勤勞者 내지 被支配階層에도 利益을 分配받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그 限度 內에서 現實性を 지닐 수 있었다. 勿論 被支配層의 分配量은 支配階級의 分配量에 比하면 보잘것이 없었으나 分配의 不均等은 支配者의 象徴操作 때문에 크게 問題視 되지 않았다. 被支配層도 利益의 分配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는 現實과 支配層의 象徴操作은 서로 결부하여 被支配層으로 하여금 national interest라는 觀念에 情緒적으로 一體感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獨占段階에 들어서자, 여태까지 相對的 安定을 維持하

고 있던 階層間에 對立이 露出되어 支配階層이 내거는 national interest는 觀念化되어 버리고 階級的 利益이 現實化 하였다. 이에 national interest와 階級利益의 對立을 止揚해야 할 必要가 생겨났다. 一次大戰以後 義務教育의 普及, 選舉權의 擴大, 勞動組合의 發達, 勤勞者 政黨의 議會進出, 社會政策의 實施 등을 通해 勤勞者 階級的 利益도 national interest 안에 編入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西歐先進諸國에서는 national interest는 支配階層 뿐만 아니라 國民大多數의 對立은 拂拭되고 이 兩者는 心理的으로도 現實的으로도 一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新生諸國의 境遇에는 事情이 좀 다르다. 지난날 植民主義에서의 解放을 追求하던 時期에는 national interest는 觀念的으로는 勿論이요 現實的으로도 分열되지 않았다. 植民主義의 앞잡이 노릇을 한 極小數를 除外하고 온 民族이 하나의 共同目標 아래 團結하고 있었으므로 national interest의 分열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獨立 後에는 事情이 달라지게 되었다. 近代化의 推進에 따르는 教育과 經濟的 富가 民族의 各 集團間이나 各 階層間에 골고루 分配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獨立運動 當時에는 하나로 團合되어 있던 基底集團들이 제각기 遠心分離의 勢力으로서 나타나는가 하면 社會階層間的 壓力도 커진다.

事情이 이러하기 때문에 新生諸國의 政權 擔當者들은 民族간의 分裂的인 忠誠의 초점을 單一한 國家目的으로 集中시키기 爲하여 獨立後에도 統合勢力으로서의 國家主義(nationalism)를 繼續 昂揚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게 된다. 그러나 新生諸國의 nationalism을 오늘날 西歐의 nationalism처럼 現在에 對해서 自信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national interest를 合理的으로 실속있게 追求하지 못하고, 過去의 傳統이나 未來의 使命을 지나치

게 내세우는 傾向이 없지 않다. 傳統의 強調가 지니는 政治的 意義는 狀況에 따라 다르나, 一般적으로 保守勢力이 Nationalism을 主張할때 民族的 傳統에 연유하는 이른바 「一體化의 象徴」을 操作하는 傾向이 強하다. 그리고 民族的 使命의 強調는 안으로는 權力을 背景으로 하여 個人의 利益과 權利를 유보하거나 政策的 破綻에서 생기는 現實의 모순을 將來에 對한 기만적인 目標을 設定하여 은폐하는 性格을 지니며, 밖으로는 民族的 번영과 결부되어 空虛한 民族的 위신을 昂揚하는 方向으로 나가는 傾向이 없지 않다.

## 2. 大韓民國과 國家利益

以上과 같은 點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境遇 national interest의 定立은 國論分裂을 防止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南北統一과 關聯하여 첫째, 南北의 分斷은 6.25의 悲劇的 同族相殘이라는 慘酷한 傷處를 남겼기 때문에 이러한 民族的 참화는 精神的, 物質的으로 엄청난 損害를 가져왔고, 現在도 戰爭再發可能性은 相存하고 있다는 危機意識이 國民의 마음을 恒常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이에 關한 拂拭 卽 戰爭危險의 除去라는 問題는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중 代表的인 양상이 統一에 依한 方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明白히 國家利益에 合致된다.

둘째, 南北의 分斷은 政治的인 面에서 政治權力의 非民主的인 要素의 擴散으로 因해 歷代政權으로 하여금 獨裁體制維持의 구실로 利用되어 分斷國의 國民이 아니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政治的 歪曲과 試練을 겪고 있다는 主張이 있다. 이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異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問題는 國家利益 優先順位 決定의 問題라고 본다. 國家利益의 本質的인 것과 부수적인 것 또한 時急한 것과 신중성을 要求하는 것에 對한 公正하고도 客觀性있는 配慮만이 있다면 이러한 問題는 拂拭될 수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安保的 狀況에 處해 있는 것을 기화로 부당하게 國民 基本權의 制限을 要求한다면 이는 不法行爲 構成에 關한 問題이지 統一論議에 關聯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點에 關한 國論分裂은 國力의 浪費를 줄일 수 있다는 國家的 利益의 實利를 追求할 수도 있다.

세째, 南北의 分斷은 經濟的인 面에서 自然資源의 分割, 工業施設의 分割 등으로 말미암아 經濟發展의 沮害는 勿論 對外依存의 經濟構造의 深化는 必然的으로 低賃金, 低穀價 政策으로 連結됨으로 해서 貧益貧 富益富의 過程은 加速시켜왔다는 主張과 함께 南北의 軍事的 對峙 狀況은 莫大한 軍事費 支出을 強要하게 되어 國民經濟發展에 큰 障礙要素로 存在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따라서 南·北統一은 國民經濟的인 側面에서도 플러스的인 要素라는 評이다. 이러한 評에 있어서 莫大한 軍事費의 支出을 줄일수 있는 方案이 있다면 統一을 비롯하여 이는 마땅히 national interest에 合致된다고 본다. 그러나 對外依存의 經濟構造의 問題는 統一論과 無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經濟秩序는 國際的 關係로 把握하여야 하며 國際的으로 垂直的, 水平的 分業을 通해서 國際協力을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對外 依存의 經濟構造의 深化로 低賃金, 低穀價 政策이 나왔다면 이는 經濟運營上의 問題이지 統一論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단적인 例로 오늘날 不實한 內部經濟體制를 가지고 있는 國家는 大部分 低開發國에 然由하는 것이지 分斷國 特有的 現象은 아니기 때문이다.

네째, 南·北의 分斷은 社會的인 側面에서 볼 때 極限的인 이데올로기 教育에 立却해 民族相互間에 敵愾心은 強化되고 이에 따른 社會構造도 硬直化 되는 現實을 招來함으로 해서 社會發展이 정체화 되었다는 論議이다. 이러한 論議에 對해서는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에 關한 特別 聲明을 通해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을 反對하지 않으며 互惠平等原則下에 모든 國家에 門戶를 開放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데올로기건 어떠한 政體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交流가 可能하며 우리의 主體性에 立脚해 社會를 發展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느 社會건 그 社會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價値觀은 存在하는 것이며 그러한 價値觀의 存在로 因하여 外部世界와 의 交流가 어렵다는 價値觀 運用의 偏狹性에서 오는 것이지 價値觀 그 自體의 存在로 부터 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社會發展에 있어 限界와 制限이 現實的으로 存在한다는 點은 認定할 수 밖에 없다.

以上과 같이 볼 때 統一이 達成될 境遇 national interest에 符合되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民族主義의 境遇 統一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또한 國益에 反한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民族主義에 關한 論議도 活潑히 展開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統一論議의 範圍를 行爲 主體面에서 把握할때 어디까지 認定할 것이냐의 것이다. 卽, 統治行爲 次元에서만 統一論議가 可能한 것인가? 아니면 國民大多數가 參與한 가운데 國民的 意思 決義로서의 統一의 論議도 容納될 수 있는가 하는 點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論議에 對해서는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國益을 念頭에 두면서 官主導의 統一政策을 一方的으로 國民에게 주지시키는 데 不過했다. 이러한 態度

는 統一問題란 國民個個人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別個의 特殊한 領域으로 넘겨버려 國民의 統一意識을 高揚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그러한 側面에서 볼 때 오히려 이는 國益에 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統一論議는 全國民的으로 擴大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한가지 부기할 것은 統一問題가 民族的 利益의 死活이 걸린問題라고 假定할 때 南·北 相互間의 提案에 對한 雙方의 受容態도의 問題이다. 南北問題에 있어 平和的 統一을 이루기 爲해서는 一次的으로 對話에 應하여야 하며 對話란 서로가 對等한 가운데 自由로운 討論을 걸쳐 妥協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主張한 內容과 結果的으로 變化된 結論에 到達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受容을 해야만 하는 것이 對話의 基本的 姿勢이다. 그러나 對話를 통한 妥協을 自己 主張의 貫徹만을 爲한 것으로 把握한다면 애당초 對話는 存在하지 않으며 이는 곧 命令·服從關係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主張하지 않은 內容이더라도 相對方의 妥當性 있는 主張에 對해서는 受容할 줄 아는 아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령지 않고 相對方의 主張에 對해 그 妥當性을 認定했다고 해서 利敵罪가 適用된다면 對話는 永遠히 斷念하여야 하며 이렇게 될 境遇 南·北對話를 통한 緊張緩和라는 國益이 侵害되기 始作하는 것이다.

## V. 統一을 위한 國民的土臺의 造成

### 1. 貧富隔差의 해소를 통한 社會的 一體感 形成

7.4 共同聲明 이후 文公部가 發行한 「南北共同聲明은 무엇을 뜻하나」라는 책자에서 政府는 南北對話에 임할 國民的 姿勢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① 對話에 臨하는 모든 國民은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투철한 信念이 있어야 한다. ② 對話는 國力을 바탕으로 進行된다는 原理를 생각할 때 對話를 成功的으로 進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國力을 키워야만 한다. ③ 對話의 成敗는 北韓이 어느정도 성의있게 對話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國民은 성급하게 對話의 成果를 期待하거나 서둘 必要가 없다. ④ 南北間의 對話를 成功시켜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民의 總和를 이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투철한 信念〉, 〈國力の 培養〉, 〈成果에 대한 신중한 期待와 對策〉, 〈國民의 總和〉의 4가지가 이루어지려면 社會를 防衛하고자 하는 動機賦與가 있어야 하며, 이는 社會, 構成員 하나에 있어 그 社會에서 舍當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現實的인 均衡感覺이 있어야 하며 이의 代表的인 것이 바로 貧富隔差의 解消問題이다.

실로 貧富의 이중구조가 深化되면 될수록 저변에서 허덕이는 大衆들은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은 커녕 懷疑가 앞서고 國家가 아무리 動員體制를 確立하려고 해도 支持基盤의 喪失로 國民總和는 不在하고 國力培養도 困難하며 나아가서는 大衆들의 不滿 폭발은 現實否定으로 기울어져 어떠한 성급한 期待와 變化를 원하게 되어 國內政局은 混亂에 混亂을 거듭할 것

이다. 따라서 兩極화된 貧富隔差의 狀況속에서는 그러한 社會가 統一을 主導할 수는 없다. 따라서 社會的 貧富隔差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國家가 主導하는 經濟의 計劃化가 必要하다. 여기서 말하는 計劃化란 自由방임에 對稱적인 概念으로서 自由방임만 으로서는 社會經濟의 兩極化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經濟計劃이나 目的意識적인 諸政策은 民主主義의 大原則에 위배되는 處事가 아니냐 하는 疑問이 提起될 수 있다. 그러나 착취다, 經濟的 不平等이다, 經濟計劃이다, 하는 것은 國家秩序의 經濟的 內容과 關聯된 문제이지 그의 政治的 形態에 關聯된 問題는 아니다. 이에 反하여 民主主義는 國家의 特殊한 形態이고 國家秩序의 特殊한 內容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民主主義하는 政治形態는 社會主義經濟를 그의 內容으로 삼을 수도 있고 資本主義經濟를 그의 內容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獨裁國家가 어떤 理由때문에 社會民主主義 經濟體制를 樹立하고 維持한다고 할지라도 그 政府는 여전히 獨裁政府이며 民主主義의 性格을 띠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民主主義와 獨裁主義를 判가름하는 基準은 무엇보다도 먼저 經濟政策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權力構造의 성격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經濟的 平等을 유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目的意識적인 經濟計劃政策은 그것이 國有化나 社會化로까지 비약하지 않는 한 民主的인 權力構造內에서 遂行된다면 民主主義의 大原則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 2. 主體的 民族史觀의 形成

解放과 함께 民族과 學問이 모두 분단되었고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분단이 이루어진 때부터 民族의 統一이 達成될 앞으로 어느 時期



까지의 歷史學은 分斷時代의 史學으로서 일정한 制約性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속에 살고 있는 이상 이 時代의 歷史에 대한 客觀的이고도 적절한 反성과 展望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더욱더 그것을 客觀化하고 그 이후를 展望하는 하나의 視角을 가질 必要가 있다.

여기서 時急한 것이 〈主體的 民族史觀〉을 樹立하는 일이다. 主體的 民族史觀을 세운다는 것은 民族史의 어두운 部分이나 부끄러운 部分을 가리거나 억지로 美化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끄러운 部分이나 자랑스러운 部分임을 莫論하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 民族 스스로의 의지와 責任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임을 確信하고 그 속에서 民族史의 創造的 發展에 이바지될 원동력을 찾아내어 그 意味를 분명히 하는 姿勢가 중요한 것이다. 〈主體的 民族史觀〉을 세우고 또 가르치는 것은 民族的 유대의식을 強化하고 그것을 통하여 愛國心을 기르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支配階層의 歷史的 役割만을 強調한 支配階層 中心의 歷史는 民族的 유대의식의 強化에 어긋나는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

分斷時代의 史學이 가진 이러한 制約을 克服하기 위한 具體的 研究作業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일은 보다 높은 次元에서의 統一志向的 民族主義論을 定立하는 일이다. 分斷時代 民族社會의 現實的 要求를 바탕으로 그것이 투영될 수 있는 方向에서의 研究作業이면 어떤 時代의 어떤 사실을 對象으로 하여도 分斷時代 克服에 貢獻하는 史學이 되겠지만 전체 分斷時代를 통하여 民族分斷을 克服하고 統一에 이바지할 수 있는 史實을 開發하여야 한다는 歷史認識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은 드물다. 그런 가운데 李佑成教授가 1975年 「創作과 批評」 10卷 4號에 發表한 「남북국시대

(南北國時代)와 崔致遠」이란 論文을 例로 보기로 하자.

李教授의 論文은 統一時代 신라와 발해, 그리고 唐나라와의 關係를 두고 쓴 글인데, 그것에 의하면 발해가 우리民族이 세운 國家임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통일신라시대는 곧 南北國時代로 理解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러나 이 南北國은 唐나라의 東方政策 즉 等距離外交政策에 의하여 조종 됨으로써 끝까지 서로 對立關係로 일관하였다고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8)</sup>

이리하여 南北 兩쪽은 서로가 亡할 때까지 한 번도 和合할 수 없었다. 그것은 南北 等距離 外交로 일관된 唐나라의 東方政策에 시종 조종되면서 서로 깨닫지 못했던 때문이었다. 신라가 唐에의 일변도로 唐나라의 힘을 빌어 발해를 누르려고 했던 것이나, 발해가 低姿勢를 무릅쓰고 멀리 日本에 朝聘을 다녔던 것은 다같이 後世의 歷史的 批劄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 論文이 指摘한 南北國時代와 오늘의 分斷時代 사이에는 1千年의 時間的 차이가 있지만, 두 時代를 보는 歷史認識은 時間的 차이를 넘어 一致될 수 있는 것이다. 이후의 우리 歷史 특히 植民地時代, 獨立運動時代의 歷史 속에서도 歷史認識과 方法論에 따라서는 統一民族國家 樹立에 이바지될 수 있는 歷史的 사실을 쉽게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世紀 후반기 우리 歷史의 至上課題로서 統一民族國家 樹立을 위한 民族主義 理論의 定立問題도 分斷時代 克服을 志向하는 史學의 課題이

---

8) 姜萬吉, 分斷時代의 歷史認識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78, p. 23 및 以下 참조.

이다. 民族主義의 概念이 歷史的으로 變化하고 있지만 3.1 運動에서 일단 하나의 段階를 지은 民族主義는 이 후의 獨立運動 過程과 統一民族國家樹立過程을 통하여 얻어진 歷史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性格變化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統一指向 民族主義로서의 確實한 理論定立이 안 되어 있다.

### 3. 民族同質性 維持를 위한 方案의 講究

오늘날 南·北韓은 각각 상이한 文化와 經濟制度를 가지고 있다.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 對 共產主義로 對比되고 政治的으로는 自由民主主義 對 共產黨獨裁로 區分될 수 있으며 文化的으로는 個人主義 對 集團主義로 區分될 수 있다.

南·北韓이 오늘날 이와 같은 社會體制의 차이를 가져온 理由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각기 상이한 外來文化의 支配를 들 수 있다. 南·北韓 모두 外來文化의 受容時 應當 겪었어야 할 在來文化와의 충돌이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外來文化에 대한 심각한 考慮나 再構成의 契機가 賦與됨이 없이 一方通行式으로 傳統文化에 덧칠을 한 結果가 되었다. 따라서 南韓에서는 美國的인 資本主義的 消費文化가 이상시 되고 北韓에서는 蘇聯的인 共產主義的 集團主義 文化를 절대시 하는 風潮를 形成하고 말았다.

둘째, 政治勢力의 兩極化를 들 수 있다. 北韓의 赤化政策에 대해 南韓은 反共政策으로 맞서는 極斷的인 對立의 惡循環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兩極화된 異質的인 政治勢力의 分化는 對立的 政治이데올로기를 合理化시켰고, 이러한 政治이데올로기의 支配를 통한 生活感覺의 차이를 深化시켜 전혀

다른 思考方式을 갖도록 만들었다.

세제, 상이한 經濟制度 確立의 影響을 들 수 있다. 北韓은 소위 私所有가 부정되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입각한 勞動獨裁權力이 樹立되어 있는 반면 南韓은 資本主義를 바탕으로 한 社會的 市場經濟秩序를 根幹으로 하는 社會이다. 따라서 南韓에서는 個個人的 責任 아래 經濟生活이 營爲되는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國家가 個人的 經濟生活을 責任지는 전혀 異質的인 生活環境을 자아내고 있다.

네제, 상이한 階層構造의 特徵을 들 수 있다. 南韓에서는 資本家 階層이 主要한 階層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한 階層에 불과한 勞動階級만이 支配階級으로 군림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中間階級을 모두 勞動階級化하는 階級統一化作業을 하고 있으나 南韓에서는 中間階層을 育成시켜 資本階層과 勤勞階層을 相互牽制하고 調整하는 中心勢力化하고 있다.

이 외에도 社會化過程에서 南·北韓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北韓에서의 社會化는 計劃的 社會化, 示範的 社會化, 集團的 社會化, 一面的 社會化의 方式이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社會化의 方式은 北韓의 靑·少年層에게 대단히 큰 影響력을 미쳐 南과 北의 靑·少年 사이에 전혀 다른 人間類型이 養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南·北韓에 있어 社會體制의 異質化 현상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持續될 경우 더욱 深刻해 지리라 豫想되지만 그렇다고 兩體制 사이에 接近할 수 있는 共通的인 要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南·北韓은 우선 民族文化的 背景을 같이 하고 있고 民族成員으로서의 一體感을 確認할 수 있는 同一한 言語를 가지고 있다. 또한 南·北韓은 공히 民族

統一을 政策的 目標로 내세우는 政策上的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한식구를 이루고 살고 있던 家族의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本來 하나였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多方面에 걸친 交流의 시도를 하여야 하며, 研究的인 姿勢로서는 능동적으로 北韓의 生活言語, 慣習을 계속적으로 把握하여 國民에게 傳達하는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다.

## VI. 提 言

韓半島의 問題는 이데올로기의 침예한 對立과 周邊 強大國의 利害關係가 複雜하게 뒤얽힌 地理的 位置로 因하여 世界의 耳目을 集中시키고 있다. 耳目을 集中시키는 內容中 가장 重要한 것은 現狀維持냐? 現狀變化냐? 라고 하는 點이다. 現狀維持라고 한다면 하나의 民族에 두개의 國家論에 定着하여야 할 것이고, 現狀의 變化라면 어느쪽의 主導에 의한 變化이냐가 가장 問題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不安하다면 中立에 의한 統一案도 可能할 것이다. 이 모든 視角은 결국 外部에서 보는 視角을 基準로 한 것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內部에서 보는 視角은 몇개의 視角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現狀에 滿足하는 사람들은 현상고착론을 主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內部에서 보는 視角중 가장 먼저 決定해야 할 것은 統一이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만 當爲的인 것이기만 한다면 事實上 統一은 우리와 關聯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觀點을 認定하여야 한다. 따라서 戰後 新世代가 國家 構成員의 大多數를 차지하게 된다면 統一의 當爲性 보다는 現實의 存在性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렇다면 1830年 부터 1848年까지 사이에 獨逸統一을 위한 大論爭인 大獨逸論과 小獨逸論의 紛爭이 우리에게 있어 統一論과 分離論의 形態로 나타날 수 있음에 對 備하여야 한다.

그러나 國土分斷의 當事者들이 國家構成員의 主要한 要素로 남아있고 統一이 國家의 基本政策으로서 建國이래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統一不可論 보다는 統一當爲論이 對國民의 側面에서 볼 때 훨씬 說得力이 있다. 따

라서 國民精神 教育의 第1의 基本原則으로 平和의 祖國統一을 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統一教育에 있어서 學校役割強化의 必要性을 認識하여야 한다. 그리고 統一의 當爲性을 體系的으로도 理論적으로도 確立해 놓아야만 한다. 6.25를 겪지 않고 近代化에서 오는 價値觀의 變化를 그대로 受容하고 있는 新世代에게 있어 同族相殘의 過去를 憾情的인 次元에서만 주입시키려면 그 說得力이 不足해진다. 따라서 分斷의 長期化로부터 오는 統一에 대한 自信感의 缺如를 克服해 줄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教育이 보다 實質적으로 이루어질 必要가 있다. 이는 오늘날 南北問題를 이데올로기 對立의 面으로도 把握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즘의 克服은 마르크스즘과 資本主義라는 兩大理念의 歷史的 背景과 概念의 定義로 부터 철저히 比較 分析하는 體系的 理論教育을 통한 批判教育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데올로기 教育은 批判教育이 아니라 批難教育의 場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유물사관인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만을 상정하고 여타의 이데올로기는 없는 것처럼 取扱하는 思考의 경직성과 도식화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深刻한 歪曲과 갈등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現在와도 같은 南北間의 對峙狀況에서 南쪽은 資本主義 北쪽은 共產主義 體制로 확연히 나누어 놓고 南쪽은 좋은 制度 北쪽은 나쁜 制度라는 單純 論理만을 주입했을 경우 現實적으로 體驗하고 있는 體制에서 불만을 느끼고 결함이 있다고 判斷이 되면 그 反對便의 體制는 오히려 좋은 것일 수 밖에 없다는 結論을 내리게 하게 黑白論理的 事故方式의 危險인 것이다. 따라서 國家 構成員 모두에게 必要한 것은 이제까지의 獨善的이고 黑白論理的인 사고전개방법관 가치관을 改

善하는 教育이 時急하다.

끝으로 先生의 資質과 教育의 質도 重要하다. 先生의 統一問題에 對한 認識과 關心의 不足은 學生들로 하여금 은연중 統一이란 別問題가 아니라 는 생각을 불어 넣어준다. 先生이란 모든 教育環境 중에서 살아있는 가장 ダイナ믹한 教育環境이기 때문에 先生이 學習者의 모델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統一問題에 대한 價値基準이 後繼世代들에게 있어 統一意識의 形成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學校 教育에 있어서도 對話를 練習하는 教育이 必要하다. 相對方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自己의 意思를 올바르게 表現하는 姿勢가 確立되지 않는 한 끝없는 不信과 言語의 유희에 싸여 獨善的인 立場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新世代가 이렇게 된다면 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의 길은 여전히 남의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